



경춘선 힐링타운 폐철길에 가을이 한껏 무르익었음을 알려주는 수크령이 소담스레 피어 있다. 노원구에는 불암산, 영축산, 공릉동 등에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담아 걷기 좋은 힐링타운을 조성했다. 화랑대역 앞 경춘선 힐링타운은 경춘선을 철거하면서 공릉동 일대를 보존해 만든 숲길 공원이다. 사진제공 | 서울관광재단

노원에는 수크령이 활짝 피었습니다

(수크령의 꽃말: 가을의 향연)

불암산 힐링타운, 나비 정원 등 갖춰 경사도 낮은 '무장애 산책로' 인기
여러 소나무 있는 태릉 숲길 매력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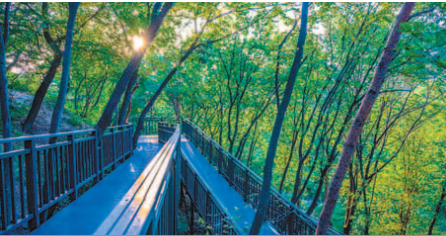
서울의 자치구들이 요즘 도심 산책길을 조성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지만, 노원구는 좀 특별하다. 이곳은 구내의 산과 숲을 활용해 권역별로 특색있는 힐링타운을 조성했는데,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도 숲길을 불편없이 즐기도록 무장애 숲길을 잘 갖추었다. 폐역사와 폐쇄된 철길이 재탄생한 숲길에는 아련한 낭만이 넘치고, 당현천 산책로에서는 가을이 절정인 수크령이 만개했다. 무르익는 가을에 거닐면 좋은 힐링코스를 서울관광재단과 노원구가 추천했다.

●무장애 숲길과 공트럴파크, 힐링타운 3곳
불암산 힐링타운은 나비 정원, 철쭉동산, 무장애 숲길, 산림치유센터와 유아숲 체험장 등을 갖춘 곳이다. 나비 정원은 온실에 10여 종의 나비 7000여 마리를 풀어놓아 사계절 나비를 관찰할 수 있다. 나비정원 앞 철쭉동산은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붉은 꽃나들이 장소로 인

기다. 울퉁불퉁한 돌길 위에 나무 데크를 깔아 걷기 편하게 만든 무장애 숲길은 약 2.1km 길이다. (4호선 상계역 4번 출구, 샛갯봉 근린공원 방향 도보 15분)

경춘선 힐링타운은 경춘선을 철거하면서 화랑대역 앞 공릉동 일대를 보존해 만든 공원이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꽃길과 숲길도 보존해 걷는 운치가 있다. 한때 낙후된 지역이던 공릉동 경춘선 주변은 숲길 공원으로 재탄생하면서 카페와 음식점이 하나둘 자리잡아 '공트럴파크'라는 애칭이 붙을 만큼 인기가 높아졌다. 저녁이면 옛 화랑대역 일대는 화려한 불빛축제가 벌어진다. LED 조명을 이용해 다양한 테마로 화랑대역의 낭만을 되살렸다. 역사 벽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가 하이라이트이다. (6호선 화랑대역 2번 출구)

영축산 힐링타운은 떠오르는 힐링코스다. 데크로 경사도 8% 이하의 무장애 순환산책로를 만들었다. 월계 꿈의숲SK뷰 아파트에서 월계 롯데캐슬루나 아파트까지 약 1.83km 구간이다. (1호선 광운대역 2번 출구, 월계삼거리 정류장서 261·1137·1017·1140번 버스, 버루말고 정류장 하차해 SK아파트 옆 골목 도보로 10분)



불암산 힐링타운 무장애 숲길



공릉동 카페거리



명종과 인순왕후의 능이 함께 있는 강릉



당현천 음악분수

●태릉의 소나무숲, 수크령 만개한 당현천
태릉은 조선 중종의 왕비 문정왕후 윤씨를 모신 능이고 강릉은 조선 명종과 인순왕후를 모신 능이다. 태릉은 다양한 모양의 소나무가 인상적인 울창한 숲이 매력이다. 최근 문화재청은 조선왕릉 숲길을 정비해 개방했다. 왕릉별로 8개 숲길을 엮어 코스를 만들었다. 태릉과 강릉은 불암산 능선 숲길 1.8km를 이어 연결했다. 11월 29일까지 개방한다. (6호선 태릉입구역 7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서 1155·1156·73번 버스, 태릉 정류장 하차)

당현천 산책로는 노원수학문화관 앞에서 중계역을 지나 중랑천과 합류하는 지점까지 2.6km 구간이다. 지금 가을철에 만개하는 수크령이 절정이다. 9월에 만든 음악분수가 새로운 야경명소다. 노원수학문화관 앞에 있으며, 오후 7시부터 15분간만 운영한다. 당현천에서는 11월 15일까지 '2020 노원달빛산책' 등축제가 열린다. 당현천 새싹교~당현3교까지 구간에 200여 점의 등불을 전시할 예정이다. (4호선 상계역 4번 출구 도보 5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세계바둑 스타워즈’ 삼성화재배...한국 신진서·신민준 등 7명 16강 올라

오늘 온라인 대국으로 16강 진행

‘세계바둑 스타워즈’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본선 첫 전장에서 한국은 14명 중 7명이 생존 신고를 했다.

27일 각국에 마련된 특별대국장에서 온라인 대국으로 열린 2020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32강에서 한국은 랭킹 1위 신진서 9단을 비롯해 3위 신민준, 4위 변상일 9단 등 7명이 32강을 통과했다.

가장 먼저 승전보를 전해 온 선수는 신진서. 지난 대회 8강에서 패배를 안겼던 중국 라오위안허를 상대로 221수 만에 흑 불계승하며 설욕에 성공했다. 신민준은 디펜딩 챔피언 중국 탕웨이싱을 152수 만에 꺾었고, 와일드카드로 본선에 합류한 변상일은 중국 천야오예에게 승리했다.

반면 프로기사 랭킹 2위 박정환은 세일하오에게 반집패, 이동훈은 커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32강에서 탈락을 당했다.

중국을 랭킹 1위 커제 9단을 비롯해 한국과 동수인 7명이 16강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은 이치리키 료 8단, 대만은 쉬하오홍 6단만이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16강전은 28일 오전 11시부터 각국에 마련된 특별대국장에서 온라인 대국으로 진행된다. 신진서는 중국의 렌샤오, 신민준은 일본의 이치리키 료와 16강전을 치른다. 와일드카드 변상일의 상대는 중국의 리쉬안하오. 중국의 1인자 커제의 8강행은



서울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에서 온라인으로 32강전을 치르고 있는 한국선수들. 사진제공 | 한국기원

조환승이 저지한다.

2020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의 우승 상금은 3억원, 준우승 상금은 1억원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0월 28일(수) 음력: 9월 12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청색 길방:동 오늘의 마음:쾌청	 소	행운색:흰색 길방:서 오늘의 마음:구름	 호랑이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여우비	 토끼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먹구름	 용	행운색:흰색 길방:서 오늘의 마음:파도	 뱀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쾌청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오늘은 용의 날이다. 쥐뱀은 장성의 기운으로서 용을 만나면 무르익은 기운을 바탕으로 결실의 탑을 쌓는 형상이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지 마라.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때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때는 이루어진다. 오늘은 용의 날로서 천살에 해당한다. 천살이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는 천재지변을 의미한다. 오늘은 관재수를 조심해야 한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월살 또는 고조살이라 해서 씨앗이 발아가 되지 않는 날이다. 결혼식, 개업일 등 시작을 알리는 날로서는 맞지 않는 날이다.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뒤흔들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육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오늘은 반안일이다. 노력과 정성과 운의 결실을 의미한다. 여우를 가지고 조용히 물러서서 노련하게 실속을 차린다는 뜻도 된다.	감언이설에 조심만 한다면 일을 벌이고 뜻을 펼치는 대로 행통하게 될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며 최선을 다하라. 교섭과 거래에 있어서는 강경책보다는 온화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오늘은 용의 날이다. 흐르던 물이 잠시 갇힌 형상이다. 물이란 항상 흐르는 것이다. 겉보기엔 외롭지 않아 보이나 사실은 외롭다.	기회를 얻어 공업을 이루는 운이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사행통할 운세이다. 그러나 매사 항상 준비하는 마음가지미 필요하며 겸손하고 온화하게 생활하여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오늘은 천살일이다. 혼돈의 시기이다. 전환기와 같다. 천살은 순수하고, 깨끗하며, 조용한 상태이다.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말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여명	 양	행운색:흰색 길방:서 오늘의 마음:신기루	 원숭이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노을	 닭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오늘의 마음:맑음	 개	행운색:흰색 길방:서 오늘의 마음:해·번개	 돼지	행운색:청색 길방:동 오늘의 마음:싸늘
직장인은 능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근처에 적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경계망동하지 말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 구직자는 곧 취업이 되겠으니 노력하라. 오늘은 월살이다. 어두운 밤길에 달빛이 나타난 격이다. 금전의 융통이나 어려움의 해결은 용띠에게 부탁하라.	지출을 억제해야겠다. 낭비벽이 생김으로써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까 두렵다. 또한 사치는 금물이나 질투를 없애야 하고 주변을 살펴서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면 후일 그 보답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반안일이다. 반안은 말안장을 뜻한다. 집금이나 높은 자리를 의미하며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다.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용담샘에서 흐르는 가냘픈 물줄기의 형상이다.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극단적 마음이나 경계망동을 삼가라. 그러나 지적인 일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밝은 미래를 암시해주고 있다. 오늘은 화개이다. 한 분야에 몰입하여 타의 시선이나 관심에 개의치 않는 것이 특징이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오늘은 손을 안대도 될 것을 자꾸 건드리고 싶은 날이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 변화를 시도하려면 신중하고, 묻기를 거듭하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어딘가에 허술한 면이 있으니 찾아서 보강하길 바라며, 도움을 청할 일이 있거나 자문을 구할 일이 있다면 여성에게 부탁해 보라. 오늘은 월살과 화개살이 부딪히는 날이다. 관재, 송사 조심해야 한다. 또한 비밀노출이고 싸움으로도 해석된다.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느그롭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원진살과 귀문관살을 만났다. 신경이 예민해지는 날이다. 그러나 용을 만난 돼지띠는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고 버티려는 기운이 생기는 날이다.						

라이프

스포츠동아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15

날씨와 생활

28일(수)

서울	20/0	인천	20/0	수원	20/0
	10 17		10 16		9 17
춘천	20/0	강릉	20/0	청주	30/0
	9 18		13 19		11 17
대전	30/0	전주	30/0	광주	30/0
	10 18		10 19		11 19
대구	20/10	울산	30/0	부산	30/10
	11 20		11 21		13 21
창원	30/10	제주	30/2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12 20		16 19	최저	최고기온 C
☀ 해돋이 06:53 해질 17:38 🌙 달돋이 16:25 달질 03:24					
산 날씨					
북한산	☀	8/18	내장산	☀	10/18
설악산	☀	12/18	무등산	☀	9/20
오대산	☀	9/17	주왕산	☀	6/18
속리산	☀	7/17	지리산	☀	10/21
계룡산	☀	9/18	한라산	☁	15/22
바다 날씨					
인천송도	☀	10/16	안면도 꽃지	☀	9/17
제주도	☀	10/17	변산반도	☀	10/18
경포대	☀	13/19	거문도	☀	10/20
속초	☀	11/18	해운대	☀	13/21
대천	☀	9/17	제주도	☁	16/19
미세먼지					
서울	43	보통	대전	34	보통
부산	35	보통	경기	50	보통
대구	40	보통	강원	31	보통
인천	38	보통	전북	41	보통
광주	40	보통	제주	22	좋음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442호	
발행인 이인철	편집인 이성춘	편집국장 연제호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경제산업부장 양형모		
사건부장 안희호	고충팀 안희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